

##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투석 시작시 임상양상이 장기간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내과, 임상의학연구소

양종오 · 길효욱 · 이은영 · 홍세용

**목적** :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투석의 시작에 대한 균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은 특정한 요독증상과 혈장 크레아티닌이나 크레아티닌 제거율과 같은 검사소견을 기초로 하여 투석을 시작한다. 그러나, 요독증상의 발생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므로, 투석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석 시작시의 임상양상과 검사소견을 평가하고 장기간의 예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방법** :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시작했던 3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투석 시작시의 매년의 기록과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된 결과 측정은 사망이었다. 투석 시의 임상적인 자료는 연령, 성별, 원인 신질환, 당뇨병의 존재 유무 등이었다. 신기능은 사구체 여과율로 표현되었다. 사구체 여과율은 MDRD 연구의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 평균 연령은 48.3±14.3세이고 투석의 평균 기간은 67.3±36.4개월이었다. 투석 시작시의 평균 사구체 여과율은 6.6±3.3 mL/min/1.73 m<sup>2</sup>였다. 339명의 환자 중 254명이 생존하였고, 85명 (25.1%) 이 사망하였다. 투석을 시작한 모든 환자 중 50% 이상이 사구체 여과율의 정도에 대하여 DOQI guideline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론** : 투석을 새로 시작하는 환자들의 우세한 임상양상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하여 투석의 시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